

산림조합중앙회, 창립 제64주년 기념식 개최

“국민 신뢰받는 산림기관 도약”... 산림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창립 제64주년을 맞아 15일 서울 송파구 청사에서 창립기념식과 유공자 시상식을 진행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64년간 국토녹화의 주역으로 헌신해 온 임직원과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다”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림 전문기관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림사업 및 산림보호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포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정덕교 진주

시산림조합장은 임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김근선 제주시산림조합장은 산업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권영건 옥천군산림조합장과 공주시산림조합은 대통령 표창을, ▲강석주 조합감사위원

원장과 이용범 동부산림사업본부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산림조합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임직원 34명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중앙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산림조합 운영상황 분석 우수기관으로 ▲평창군산림조합(대상) ▲하동군산림조합(금상) ▲보은군산림조합(은상) ▲횡성군·금산군·단양군산림조합(동상)을 선정해 시상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1962년 창립 이래 국토녹화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선도하며 산림의 가치를 높여온 데 앞장서 왔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산림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역할과 책임 완수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창립 제64주년 기념식 개최(산림조합중앙회 제공)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국립산림과학원, 송이 자생지 생태계 유지 원리 규명

미생물 네트워크 분석으로 생장 요인 밝혀

국립산림과학원이 메타게놈 분석을 통해 송이 자생지의 독자적인 생태계 유지 원리를 밝혀냈다. 송이는 인공재배가 어려운 외생균근균으로, 기후변화와 산불 등으로 서식지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취약’ 종으로 등재되는 등 보존과 기술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팀은 송이 균사가 활발히 활동하는 ‘균환(Fairy-ring)’ 내 토양 미생물 군집을 공간·계절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송이균이 주변 미생물 네트워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이균은 경쟁 미생물

을 억제하는 동시에, 공생에 도움을 주는 특정 박테리아를 선택적으로 유도하는 특성을 보였다. 외생균근 형성과 영양분 공급에 기여하는 페니바실러스(Paenibacillus), 바실러스(Bacillus), 코넬라(Cohnella) 등의 분포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절에 따른 미생물 대사 할

동 변화도 관찰됐다. 송이가 발생하는 가을철에는 비타민 및 보조 인자 합성과 관련된 미생물 대사 경로가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버섯 발생 시기에는 토양 내 미네랄 성분이 증가해 생육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는 경향도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송이가 주변 미생물과 기능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영양분을 확보한다는 점을 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Forests 2026년 5월호에 게재됐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송이의 미생물 네트워크와 조력 세균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유익 미생물을 활용한 인공재배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정종묘 생산과 자생지 관리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겠다”고 밝혔다.



▲송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분비나무 추출물 혈전증 치료 효능 규명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국립경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손호용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분비나무’ 추출물에서 항혈전 효능을 규명하고, 특히 청으로부터 혈전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특허 등록(특허 제10-2963411호)을 마쳤다. 혈전증은 혈관 내에서 혈액이 응고돼 형성된 피떡이 혈류

를 막아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뇌와 심장혈관 질환에 취약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에게 큰 위협이다. 기존 화학적 약물은 위장장애, 과민반응 등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어 안전성이 높은 천연 유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절실했다. 이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2022년부터 천연 산림자원

인 분비나무에 주목했다. 연구 결과 분비나무 추출물은 혈전을 만드는 효소인 트롬빈과 혈액 응고 인자를 억제하는 강력한 항혈전 활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성과는 경기도가 장기간 축적한 산림자원 연구 데이터의 결실이다. 이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60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연구소는 이렇게 수집

한 시료와 초기 성능 검증 결과를 도내 기관과 기업 등에 유·무상으로 분양해 의약품과 바이오 제품 개발 기간 단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련 특허 26건을 출원해 이 중 16건의 등록을 완료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로 연구 역량을 증명하고 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이제 보호수 점검은 나무의사에게!

산림청, 보호수 관리의 체계적 점검 기반 마련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나무병원을 통해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1만 4천여 그루의 보호수의 질병,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현행 제도에 더해, 해당 점검 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 보호수 정기점검은 점검 주체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정부마다 보호수 점검 수준의 차이가 컸다. 이로 인해 보호수에 대한 전문적이고



▲비파괴장비를 이용 수목 상태를 진단하는 모습(산림청 제공)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나무의사가 소속된 나무병원이 보호수 점검을 전담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산림청, 5월 이달의 임산물로 ‘두릅’ 선정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5월 이달의 임산물로 ‘두릅’을 선정했다. 두릅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대표적 분비나무로 특유의 향긋한 풍미와 아삭한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4월에서 5월 사이 어린 순을 채취해 식용하며, 봄철 입맛을 돋우는 건강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 두릅은 종류에 따라 생김새와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 두릅나무의 어린 새순으로 잔가지가 많은 ‘참두릅’, 한약재로 쓰이는 독활의 순으로 땅에서 자라고 가시가

거의 없는 ‘쌍두릅’, 읍나무의 어린 새순으로 잔가지가 적고 참두릅과 비슷한 ‘개두릅’ 등이 대표적이다. 두릅에는 사포닌,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열량이 낮고 식감이 좋아 봄철 건강식 재료로 활용도가 높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두릅 페스토, 두릅 김밥 등의 조리 방법이 공유되며 새로운 제철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임업직불금 규제 완화...현장 부담 줄인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이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의무준수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했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그동안 13개 공통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항목별로 직불금이 10%씩 감액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임업 관련 협회·단체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의무는 고령 임

업인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해당 의무를 폐지하고, 임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한국임업진흥원, 청년 임팩트 창업 아이디어 챌린지 참가자 모집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부열)은 5월 20일(수)부터 6월 3일(수)까지 ‘2026년 청년 임(林)팩트 창업 아이디어 챌린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분야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창업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30명이며, 선발된 인원은 오는 6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대전 케이티(KT)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간의 ‘임팩트 데이’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우수 팀에게 팀별 활동비 200만 원과 실증과정 지원, 이와 더불어 총 350만

원의 상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부열 원장은 “앞으로도 한국임업진흥원은 청년들이 산림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p>1단계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p> <p>농장 진입로 폭 2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p>	<p>2단계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p> <p>※ 소독약은 용법용량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p>	<p>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p> <p>세척수·물(세척조)을 이용하여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p> <p>※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3일 간격 교체</p>	<p>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p> <p>축사 청소·소독 순서 ① 청소·세척 천장→벽→바닥 순 ② 건조 ③ 소독약 살포 천장→벽→바닥 순</p>
<p>- 1주일 간격 반복 도포, 비·눈 내린 후 즉시 재도포 - 도포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제 살포 금지</p>	<p>- 농장 내부, 사료빈·퇴비사·출하대 주변 매일 청소·소독 - 야생조류류 유인 요소(사료·폐사·왕겨 등) 방지 금지</p>	<p>- 지정된 관리자 외 축사 출입 최대한 통제 - 축사 출입시 손 소독, 방역복·위생장갑·전용장화 착용</p>	<p>- 사람·가축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p>